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 Macro

미국: 자금 이동과 은행 대출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 찾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은행의 유동성 부족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는 듯하다. 30일 공개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BTFP를 통한 대출이 지난 한 주 동안 107억달러 증가했으나 재할인창구 대출이 220억 달러 줄어, 둘을 이용한 대출 총액이 1,526억 달러로 113억 달러 감소했다. 다만 예금자들의 이탈 흐름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현금에 대한 필요로, 이후에는 예금에 대한 불안으로, 그리고 낮은 금리의 예금 대신 MMF가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자금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는 일단 진정되어가겠으나, 금융기관이 예금의 이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 자금 수요 감소)와 양(↓, 자금 공급 감소)이 지속적으로 압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VB 사태 이후 첫 주는 은행 대출이 소폭 늘어 다행히 급격한 신용 위축은 없었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다.

유동성 확보 급할수록 비싼 이자, 대출금리 인상 유인

대출금리는 중소형은행에서 많이 오를 것 같다. 특히 BTFP와 재할인창구를 이용해 예금 인출에 대응한 은행은 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3월 8일부터 15일까지 BTFP와 재할인창구에서 1,650억 달러가 대출되었는데, 같은 기간 중소형은행의 현금 보유가 960억 달러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700억 달러 가량은 예금 인출에 대응하는 데 이미 이용되었을 것으로 대략 추정해볼 수 있다.

문제는 연준으로부터의 대출들에 대한 이자비용이 싸지 않다는 점이다. BTFP 이자율은 4.76%, 재할인율은 5.00%다. 이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예금 인출액을 지급하는데 이용한다면, 급한 불은 끄겠지만 장기간 버틸수록 수익성 저하 부담이 커진다. 추가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는 오히려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더 큰 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당장 예금 인출에 직면하지 않았어도 중소형은행에서 대형으로, 대형은행 예금에서 MMF로 자금이 이탈하려는 꾸준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함께 높일 유인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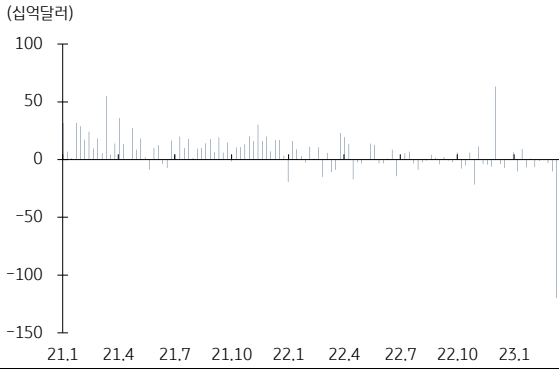
중소형은행에서 감소한 대출, 대형은행이 다 흡수하지는 않아 총 대출액 둔화할 것

시중 대출 양도 제한될 것이다. 은행들이 현금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계속 테스트를 받는 상황이라, 나간 대출 중 위험성 높은 대출부터 회수해 이를 현금화가 수월한 자산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28일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 (G-SIB)’ 외의 대형·중소형은행에 대해서도 감독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을 줄일 유인은 더 커진다. 미실현손실을 반영해 자본을 더 쌓기 위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적어도 일부를 보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소한 대출을 초대형 은행들이 다 흡수하지는 않을 듯하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대출 심사 기준이 점차 강화돼, [그림 6]에서 보듯 상업은행 대출의 전월대비 증감액은 지난해 6월 이후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대출을 늘려 영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보다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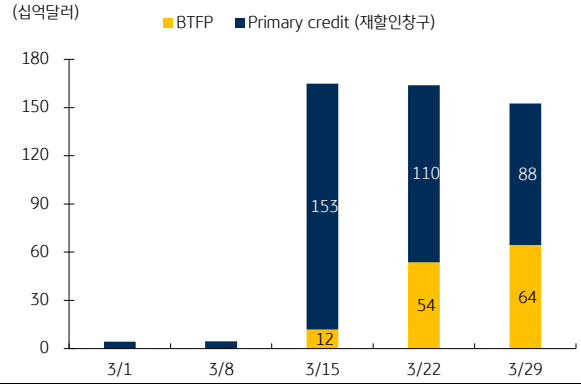
따라서 중소형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은행 예금에서 MMF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와 대출 양이 모두 압박 받을 것이다. 이는 하반기 신용 사이클을 더욱 위축시켜 금리 인상의 긴축 효과를 증폭시킬텐데, 이 과정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진행되는지가 하반기와 내년 경기 궤적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림 1. 중소형은행 예금 주간 변동액: 3/8~15 1,100억 달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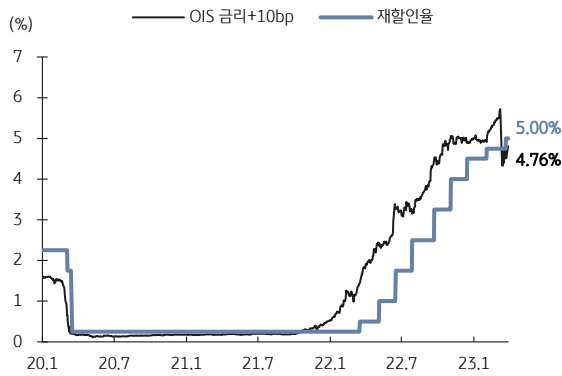
자료: FRB, KB증권

그림 2. 연준 대출: BTFP 644억 달러, 재할인창구 88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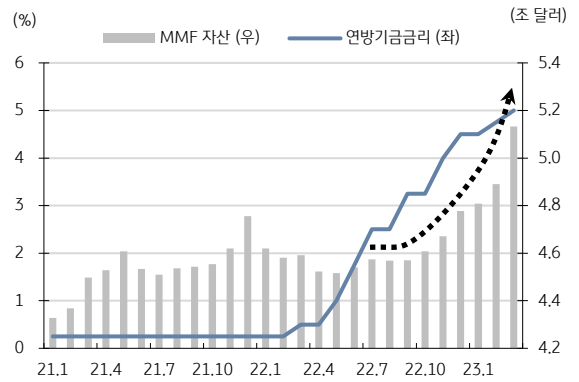
자료: FRB, KB증권

그림 3. BTFP, 재할인창구에서 대출하는 데 따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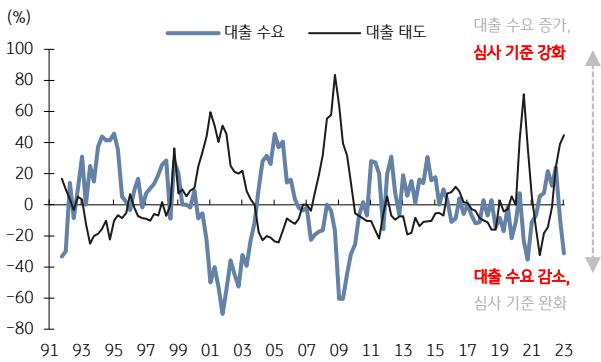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FRB, KB증권
주: OIS 금리+10bp = BTFP 이자율

그림 4. 정책금리와 MMF: 금리 3% 넘자 MMF 유입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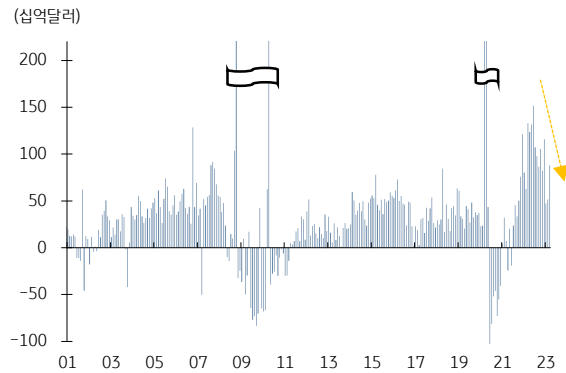
자료: CEIC,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FRB, KB증권

그림 5. 대출담당자 서베이: 대출 수요 감소, 심사 기준 강화 흐름



자료: FRB, KB증권

그림 6. 상업은행 대출 월별 증감액: 22년 6월 이후 증가폭 둔화



자료: FRB,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